

## 韓國先史時代의 食生活 — 植物性食料 —

安承模

國立全州博物館

### 1. 野生食用植物의 採集

식량을 動物性食料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에스키모 등 寒帶地域에 살고 있는 원주민을 제외한 대부분의 狩獵採集人들은 그들의 에너지를 주어진 生態의 조건에 따라 동물성식료와 식물성식료를 적절히 배합하여 취득하고 있으며, 식물성식료가 주식을 차지하고 있는 수렵채집인들도 의외로 많다는 사실이 인류학적, 고고학적 조사로 밝혀지고 있다.

Richard Lee가<sup>19)</sup> 수렵채집생활을 하는 50부족의 식료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수렵에 의한 肉類가 차지하는 비율은 20~40%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조개나 식용식물 채집으로 보충하고 있다. 주된 생계활동을 緯度別로 보면 위도 0도에서 40도 사이에 거주하는 수렵채집사회에서는 채집활동이 압도적이고 40~50도에서는 어로 채집 사냥이 비슷한 위치를 차지하는 반면, 50~60도에서는 어로가, 60도 이상에서는 사냥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채집활동이 低緯度로 갈수록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물론 식물성식료가 동물성에 비해 단백질이나 펠수아미노산의 공급은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 식물성식료만으로 살기는 어렵지만, 총 칼로리의 비율은 동물성식료에 비해 크게 쳐지지 않으며 버리는 부분이 많은 조개류에 비해서는 식료섭취 효율 또한 훨씬 높다. 그러나 식물에는 날로 먹을 경우 인간이 소화시키기 힘든 부분이나 有毒成分을 갖고 있는 것이 많다. 이 경우 불이나 물을 이용하여 유독성을 제거시켜 먹을 수 있게 가공하여야 하는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 따라서 도토리나 穀類와 같이 가공과 요리에 시간과 노동이 많이 들어가는 식물성식료는 대형동물이

전멸되거나 감소된 後氷期 이후 집중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선사인의 식료측면에서 볼 때 후빙기는 氷河期의 대형동물들이 전멸된 채 다른 온대동물로 바뀌지 않은 대신 작고 확장성이 강한 동물종들이 새로운 서식지를 점령하는 시기이다. 이들 동물종들은 개체수의 변동이 심하고 계절적이며, 계절성은 선사인들에게 time-stressed environment를 조성한다. 선사인들은 결국 바뀐 환경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식료획득 기술의 전문화와 분업화 또는 다양화를 주어진 환경에 맞게 추진해나가며 이러한 과정속에서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식용식물과 조개 및 어류에도 눈을 돌리게 된다.

한반도의 先史人들도 식물자원이 부족한 빙하기동안에는 대형의 육지동물에 의존하였지만 간빙기와 후빙기에는 다양한 식물성식료를 이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농경이 본격화되는 청동기시대 이후에는 농작물에 의한 식물성식료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야생의 식용식물들도 식료에서 계속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여러 곳의 호수와 습지에서 이루어진 花粉分析結果에 의한 후빙기 이후의 韓半島植物을 보면<sup>2)</sup> 1만년전부터 5천년전까지는 졸참나무 등 참나무科(Quercus)가 성행하고 버드나무, 호도나무, 서나무, 느릅나무, 자작나무 등의 落葉廣葉樹林도 발달하여 기후가 이전시기에 비하여 급속히 溫暖濕潤化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Quercus가 많이 산출되는 8천~6천년전 사이는 climatic optimum의 시기로 보고 있다. 이후는 다시 주기적인 변화는 있으나 기후가 대체로 냉량화한다. 따라서 신석기시대의 中期는 지금보다 따

뜻하였고 신석기 후기 이후의 선사시대는 약간 냉랭한 기후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신석기시대 이후의 기본적 식생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북쪽의 針葉樹林帶와 남해안 일부의 常綠廣葉樹林帶 사이의 넓은 지역이 暖溫帶 落葉廣葉樹林帶로 덮혀 있고 특히 落葉廣葉樹林에서는 각종 도토리가 무성하다. 溫帶落葉樹林帶는 기후의 계절적 변화가 심한 곳으로 단풍나무, 자작나무, 참나무, 떡갈나무, 느릅나무 등 다양한 낙엽수림이 자라고 있다. 낙엽수림대에서는 연중 상당량의 햇빛이 지표면까지 도달할 수 있고 草本類나 灌木類가 낙엽수림사이에서 풍부하게 서식할 수 있다. 또한 유기질층이 두텁게 쌓이면서 토양이 비옥하고 지력의 회복이 빠르다. 草地가 작기 때문에 대형동물은 드물지만 열대우림 다음으로 다양한 동식물군의 존재는 수렵채집인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며 식량의 계절성도 예측이 가능하다.

세계적으로 보아 북반부 中緯度地帶의 중석기와 신석기시대에는 기후의 온난화와 더불어 도토리를 산출하는 Quercus가 급증하면서 일종의 Oak-belt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들 지역에서는 도토리를 비롯한 堅果類가 집중적으로 이용되는 공통성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서울 岩寺洞과 하남 漢沙里, 襄陽 鰲山里, 陝川 鳳溪里, 平壤 南京(31號) 등의 新石器遺蹟에서 도토리가出土되어 도토리가 신석기인들의 중요한 식량이었음을 보여준다. 도토리는 칼로리와 영양가가 穀類 못지않게 높으나 대부분은 타닌에서 나오는 떫은 맛을 제거하기 위한 특수처리가 필요하다. 말안장모양의 편평한 갈판(礮石)과 그 위에 길쭉한 갈돌이 세트를 이루어 신석기유적에서 출토되는데 이것을 이용하여 도토리를 가루로 내고 이후 물에 여러번 우려 내면 떫은 맛을 제거할 수 있다. 갈판은 도토리 외에 다른 식물성식료를 가는데도 이용되었으나 청동기시대 이후에는 돌확, 절구 및 시루에 밀려 차츰 소멸된다.<sup>2)</sup>

도토리라고 불리우는 堅果類는 참나무 종류의 열매로 크게 낙엽수와 상록수로 나누어지며 우리나라에서 도토리가 열리는 나무는 20여종류가

있다. 이들 대부분은 떫은 맛을 우려내지 않고는 먹을 수 없는 종이나 우려내지 않고 열매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종류도 있다. 日本의 渡邊誠은<sup>13)</sup> 일본과 한국의 각종 도토리류를 형태와 먹는 방법을 고려하여 아래의 4가지로 분류하였다.

A류 : 둥근 종자의 상수리나무류로 낙엽수인 상수리나무, 갈참나무, 굴참나무, 떡갈나무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일본서는 별로 이용되지 않으나 한국에서는 식용도토리의 주체를 이룬다. 도토리를 粒食하는 경우는 加熱處理와 물우리기를 동시에 이용하나, 粉食의 경우는 製粉과 물에 우려는 것만으로 떫은 맛을 우려내며 별도의 가열처리는 필요가 없다.

B류 : 역시 낙엽수인 속소리나무류로 타원형의 열매를 맺는 물참나무, 졸참나무 등이 있다. 떫은 맛을 우려내는 방법은 A류와 같다.

C류 : 남해안과 서남일본의 常綠廣葉樹林帶에 많은 가시나무류로 붉가시나무, 종가시나무가 있다. 도토리의 측면은 B류와 같은 타원형이다. 粒食이든 粉食이든 물에 담가 놓는 것만으로 떫은 맛을 우려낼 수 있다.

D류는 상록수인 잣나무류로 가시나무류중 개가시나무도 여기에 포함된다. 모밀잣나무는 小圓, 구실잣나무는 끝이 뾰족한 물방울형이다. 도토리는 떫은 맛이나 독성이 없어 바로 먹을 수 있다.

한국의 선사유적에서 지금까지 출토된 도토리는 둥근 것과 약간 긴 두종이 있는데 모두 落葉廣葉樹林帶에 있는 A,B류다.<sup>14)</sup> 따라서 이들 도토리를 粒食할 경우는 가열처리와 물우리가 병용되고, 粉食시는 물우리기만으로 먹을 수 있다. 도토리가 출토되는 신석기유적에서는 대부분 연석이 공반되고 있기 때문에 가루를 내어 물에 우려낸 후자의 도토리食이 사용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도토리식은 製粉하여 떡, 국수, 죽, 수제비, 빈대떡을 해서 먹었고, 澱粉을 가공하여 도토리묵을 만들기도 하는데<sup>15)</sup> 양자 모두 가루를 다시 끓여먹기 때문에 신석기시대에도 물에 우려낸 도토리가루를 다시 토기에 넣어 끓여 각종 도토리식을 만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의 예를 감안하면 도토리가루

를 다른 식료와 섞어 불에 구워 일종의 쿠키를 해먹었을 가능성도 있다.

부연하면 물우리기법은 열매나 가루를 그대로 또는 마대속에 넣어 물에 1주일 이상 담가 놓으며, 가열처리법은 불에 장시간 가열하여 익히는 법으로 재를 이용하기도 한다. 열매를 물우리기 위해 독을 빼는 방법은 常綠廣葉樹林帶에, 가열처리법은 주로 落葉廣葉樹林帶에 분포한다.<sup>14)</sup> 물우리기는 동아시아의 상록광엽수림대에 분포하는 가공기술의 일부로 마나 감자류 등 澱粉이 많은 야생식물의 전분을 水中에 沈澱시켜 채취하는 기술체계의 일부로 존재한다고 한다. 동일본 낙엽수림대의 繩文文化에서는 기존의 가열처리법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물우리기가 결합되면서 탄닌을 제거하는 시간이 줄어들어 대량의 나무 열매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결과 나무열매가 주식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인구증가와 문화발전을 지탱하게 된다.

신석기시대부터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도토리 등의 堅果類의 食用은 역시 동시기부터 집중되는 수산(특히 해양)자원의 이용과 함께 定住性이 높은 생활을 보장해주며 이에 움집과 취락이 등장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한편 신석기유적에서 간혹 발견되는 저장구덩이는 도토리 등의 나무열매를 저장한 것으로 보이며, 구덩이에 넣은 도토리 위에 나무잎, 나무껍질을 덮고 그 위에 점토나 흙으로 밀봉하였다. 고고학적 증거는 아직 없으나 나무바구니 속에서 건조한 상태로 보관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도토리 외의 나무열매로는 신석기시대의 합천 봉계리주거지에서<sup>15)</sup> 호두(가래나무과 왕가래나무 *Juglans mandshurica* ssp *Sieboldiana* M.), 살구와 보리수과 열매가 검출되었으며, 신석기시대 후기에서 초기철기시대 사이에 형성된 한강하류 일산지역의 토탄층에서도<sup>9)</sup> 가래, 감, 개살구, 사과속 등의 식용나무가 발견되었다. 이밖에 후대의 기록을 참조하면 복숭아, 살구, 오얏, 돌배, 밤, 잣 등의 야생종도 이용되었을 것이다. 예를 들면 漢書地理志 樂浪條와 魏志東夷傳 馬韓條 등의 중국역사기록에는 우리나라의 대추와

밤이 특산물로 기록되어 있고, 밤은 기원전후한 시기의 낙랑무덤과 창원 다호리무덤에서 발견된 바 있다.<sup>5)</sup> 이들 나무열매 중 일부는 청동기시대 또는 늦어도 초기철기시대부터는 재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도토리, 호두, 밤 등의 견과류는 일본의 조몽시대 유적에서 발견된 植物遺體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도토리 등의 나무열매가 농경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주식의 역할을 과연 담당하였는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학자들도 있다.<sup>14)</sup> 이들은 野生 薯類 등의 根莖類는 보존이 안되기 때문에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을 들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토란(土卵, 芋)과 마(薯, 藷)가 자라고 있는데 토란은 동남아시아가 원산지인 타로류(*Calocasia*)의 일종이며, 후자 역시 동남아시아의 암류(*Dioscorea*)와 관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들 根莖類가 식료의 중요한 위치를 겸하는 곳은 상록광엽수림대의 根莖農耕文化圈이기 때문에 낙엽광엽수림대가 주류인 한국에서는 역시 나무열매의 중요성이 높았을 것이다.

참고로 1944년에 편찬된 『救荒植物勿と其の食用法』에는<sup>16)</sup> 총 851종의 야생식용식물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중 시골서 평소 식용되는 것이 304종, 유사식용종이 213종, 구황용 외에는 이용되지 않거나 국지적으로만 분포된 것이 334종이다. 상용되는 300여종의 식물 중 7할은 草本類고 나머지는 나무류이며, 서식지별로 보면 246종이 山野에서 채취된 것이다. 채소용으로 이용된 각종 나물류의 줄기나 잎, 뿌리를 먹는 것이 260종으로 가장 많고, 산딸기, 개살구, 다래 등 果肉을 먹는 것이 40종, 도토리, 밤 등 種實이 16종이며, 기타 꽃과 꽃가루, 나무껍질 등도 이용되었다. 이중 주식용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은 주로 나무열매, 특히 견과류이다. 이들 구황식물의 대부분은 고고학적 증거가 없는 줄기나 잎, 뿌리이지만 선사시대 식료로도 이용되었음에 틀림없다.

## 2. 農 耕

고고학자들은 가끔 定住, 土器의 사용, 저장구덩이, 그리고 소위 農具로 불리우는 石器나

骨角器의 존재 등을 농경이 존재하였던 간접적 증거로 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학자들은 위에 열거한 증거만으로 신석기시대 시작과 더불어 한반도에서도 농경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징주, 토기, 저장구덩이 등은 세계 여러 곳에서 농경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등장하고 있으며, 견과류 등의 식물성 자원과, 어류 조개 등의 수산자원이 집중되어 있는 곳에서는 농경과 관계 없이 중석기시대부터 나타나고 있다. 토기의 등장도 도토리나 물고기, 조개의 대량 식용과 관계가 있다. 도끼, 괭이, 보습, 낫 등으로 불리우는 소위 농경도구들도 확실한 사용흔적의 조사나 脂肪酸 分析 같은 과학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선 단순히 형태의 유사성만으로 농경도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역시 농경도구로 언급되고 있는 礮石도 도토리 등의 야생열매를 갈기 위해 만들어졌고, 곡물을 가는데 이용된 것은 나중 일이다. 반면 민족지적 자료로 보면 원시농경은 아무런 농경도구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고, 고고학적으로 잘 남지 않는 나무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농경도구가 발견되지 않았다해서 농경이 없었다고 말할 수도 없다.

농경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자료는 토기바닥 같은 곳에 남은 재배식물의 壓痕이나 炭화된 곡물 등의 植物遺體, 또는 논밭 등의 農耕遺構이다. 따라서 이러한 직접적 자료가 발견되기 전에는 단순히 농경이 존재하였을 가능성만을 언급할 수 있을 뿐이다. 신석기시대의 栽培植物遺體로는 황해도 봉산군 지탑리유적에서 피 혹은 조로 보이는 탄화된 곡물이, 평양 남경유적(31號住居址)에서 다량 출토된 조가 있을 뿐이다.<sup>7)</sup> 지탑리유적은 기원전 3,4천년기의 신석기시대 中期에 편년되기 때문에 한반도에서는 늦어도 신석기시대 중기부터 조 중심의 발농사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농경이 전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는 할 수 없고 한반도의 신석기시대는 일본의 죠훑시대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수렵채집경제의 연속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청동기시대가 되면 재배곡물의 종류가 급증

하여 보리, 콩, 팥, 조, 수수, 기장 등이 재배되며 벼농사도 서부와 남부지방에서 정착된다.<sup>8)</sup> 이시기의 특징적인 농구로는 곡물의 이삭을 따는데 쓰인 반달칼이 있으며, 괭이와 따비 등의 경작구는 나무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재배곡물의 종류는 지역적인 차이도 있다. 두만강유역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지방에서는 조, 피, 기장, 수수, 콩, 팥을 재배하는 발농사가 이루어지며, 대동강유역을 중심으로 하는 소위 괭이형토기문화권에서는 앞의 잡곡에 새로이 벼가, 그리고 한강유역에서는 벼와 보리가 추가된다. 한편 남부로 내려가면서 잡곡의 발농사보다는 벼농사의 비중이 커진다.

각 작물에 대하여 약간의 보충설명을 하면 조와 기장은 중국의 華北에서 이미 기원전 6천년 이전부터 재배가 시작된 작물이다. 반면 수수는 아프리카 원산으로 감정의 근기가 불확실한 중국의 몇몇 출토예를 제외하면 평양 남경과 여주 혼암리 유적의 수수가 동아시아에서는 가장 오래된 예이다. 피는 기원지가 동남아와 동북아의 두설이 있으나 확실치 않고 일본에서는 죠훑만기부터 西北九州에서 발견된다.

콩과식물은 단백질자원으로 중요한 식료이다. 농경이 확립되면서 식량이 穀物과 薯類 등의 녹말에 편중됨에 따라 동물성단백질이 결핍되게 되는데 콩과식물이 이를 보충하게 된다. 동북아에서는 콩, 팥과 녹두가 옛부터 재배되고 있다. 콩과 팥은 기원지가 동남아와 동북아의 양설이 대립되고 있으나<sup>9)</sup> 중국 동북지방과 한국에서 재배화가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중국에서는 기원전 11~7세기의 周代에 처음 기록으로 나타난다. 인도가 원산지로 추정되고 있는 녹두는 우리나라에서는 합천 저포리의 가야시대 주거지에서 팥, 조, 보리, 쌀과 함께 처음 출토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기원전 4~3세기경이 후부터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九州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녹두의 재배역사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보리는 2조종과 6조종의 두종이 있는데 이삭의 한마디에 3개의 소수가 착생하며 3개 소수 모두에 종자가 착생하는 것이 6조종, 중앙의 소수를

〈表 1〉 先·原史時代 出土 植物性食料

| 遺蹟名            | 時代                  | 食用植物遺體                         |
|----------------|---------------------|--------------------------------|
| 양양 오산리A1주거지    | 신석기전기               | 도토리                            |
| 서울 암사동주거지      | 신석기중기               | 도토리                            |
| 하남 미사리주거지      | 신석기중기               | 도토리                            |
| 봉산 지탑리2호주거지    | 신석기중기               | 조 또는 피                         |
| 평양 남경31호주거지    | 신석기후기               | 조, 도토리                         |
| 김포 佳視里토탄층      | 4020±25bp ?         | 쌀, 조                           |
| 일산지구 토탄층       | 신석기후기-초기철기          | 가래, 감, 개살구, 사과속                |
| 일산지구 토탄층       | 4070±80bp ?         | 범씨                             |
| 강화 우도패총        | 신석기후기(?)            | 범씨자국                           |
| 합천 봉계리9호주거지    | 신석기후기<br>4060±150bp | 도토리, 가래, 살구, 보리수과              |
| 제주도 북촌리바위그늘    | 신석기후기               | 개산초열매                          |
| 무산 호곡동15호주거지   | 청동기                 | 수수                             |
| 무산 호곡동주거지      | 청동기                 | 기장(15,20,31,32,35,40호)         |
| 회령 오동주거지       | 청동기                 | 콩, 팥, 기장                       |
| 자강 심귀리1호주거지    | 청동기                 | 도토리                            |
| 평양 남경36호주거지    | 청동기                 | 쌀, 조, 기장, 수수, 콩                |
| 평양 남경11호주거지    | 청동기                 | 조(?), 기장                       |
| 송림 석탄리39호주거지   | 청동기                 | 조, 팥                           |
| 여주 혼암리12호주거지   | 청동기                 | 쌀, 보리, 조, 수수                   |
| 여주 혼암리14호주거지   | 청동기                 | 쌀                              |
| 양평 양근리         | 청동기                 | 콩, 팥의 낱알흔적                     |
| 서산 휴암리A6호주거지   | 청동기                 | 범씨자국                           |
| 안면도 고남리B-1호패총  | 청동기                 | 범씨자국                           |
| 안면도 고남리B-2호패총  | 청동기                 | 복숭아                            |
| 안면도 고남리3호주거지   | 청동기                 | 쌀, 조                           |
| 안면도 고남리A6호주거지  | 청동기                 | 범씨자국                           |
| 부여 송국리주거지      | 청동기                 | 쌀(54-1,11,13), 범씨자국(50-2,54-2) |
| 부안 소산리         | 청동기                 | 범씨자국                           |
| 승주 대곡리40-2호주거지 | 청동기                 | 범씨자국                           |
| 여천 월내동8호지석묘    | 청동기                 | 범씨자국                           |
| 경주 조양동19호주거지   | 청동기                 | 도토리                            |
| 합천 봉계리 유적      | 청동기                 | 범씨자국, 콩                        |
| 거창 산포21호지석묘    | 청동기                 | 범씨자국                           |
| 거창 대야리3.4호주거지  | 청동기                 | 범씨자국                           |
| 울주 검단리주거지      | 청동기                 | 범씨자국                           |
| 경산 성동          | 청동기시대               | 범씨자국                           |
| 진양 대평리         | 청동기시대               | 범씨자국                           |
| 산청 강루리         | 청동기시대               | 범씨자국                           |

|                 |          |                                 |
|-----------------|----------|---------------------------------|
| 무산 호곡동5호주거지     | 초기철기     | 기장 또는 조                         |
| 평양 정백동2호주거지     | 초기철기     | 복숭아                             |
| 광주 신창리토탄층       | 초기철기     | 쌀, 보리 밀, 豆類, 참외,<br>살구, 복숭아, 호두 |
| 삼천포 늑도주거지       | 초기철기     | 쌀(2,8,8호), 범씨자국(11호)            |
| 수원 서둔동주거지       | 원삼국      | 벼                               |
| 춘천 중도주거지        | 원삼국      | 조, 범씨자국                         |
| 춘천 중도6지점        | 원삼국      | 피 또는 기장자국                       |
| 횡성 둔내주거지        | 원삼국      | 조 또는 피(2호), 콩                   |
| 가평 마장리          | 원삼국      | 발배                              |
| 충북 하천리F1(지동)주거지 | 원삼국      | 麥                               |
| 부안 반곡리          | 원삼국      | 범씨자국                            |
| 고창 송룡리          | 원삼국      | 범씨자국                            |
| 승주 낙수리8호주거지     | 원삼국      | 복숭아                             |
| 해남 군곡리패총        | 원삼국      | 쌀, 밀                            |
| 영암 신연리주거지       | 원삼국      | 쌀, 보리?                          |
| 경주 반월성          | 원삼국(?)   | 밀                               |
| 창원 다호리1호분       | 원삼국      | 밤, 天仙果, 돌배 혹은 능금, 산뽕?           |
| 김해 회현리패총        | 원삼국      | 쌀                               |
| 김해 부원동패총        | 원삼국말-삼국초 |                                 |
| A지구             |          | 쌀, 보리, 밀, 복숭아                   |
| B지구             |          | 쌀                               |
| C지구             |          | 쌀, 팥                            |
| 동래 오륜대고분        | 원삼국말-삼국초 | 피                               |
| 부산 조도패총(II층)    | 원삼국      | 범씨자국                            |
| 고성 동외동          | 원삼국      | 쌀, 밀                            |
| 평양 정백동37호묘      | 낙랑       | 기장                              |
| 평양 정백동19호묘      | 낙랑       | 복숭아                             |
| 평양 석암리219호묘     | 낙랑       | 피                               |
| 평양 석암리201호묘     | 낙랑       | 복숭아                             |
| 평양 남정리116호묘     | 낙랑       | 麥, 복숭아, 밤                       |
| 합천 저포리C지구A7호주거지 | 삼국       | 쌀, 보리, 팥, 녹두, 조                 |

제외한 양쪽의 소수는 불임으로 된 것을 2조종이라 한다. 2조종과 야생2조종은 걸보리, 재배6조종은 걸보리와 쌀보리의 두종이 있다. 보리는 밀과 함께 근동지방이 원산지로 보고 있으나 티벳트에서 야생6조종이 발견되어 2조종은 근동에서 6조종은 티벳트에서 기원했다는 설도 있다.<sup>1)</sup> 그러나 티벳트의 것이 순수한 야생종이

아니라는 설도 있으며 야생2조종에서 재배2조종과 6조종이 독립적으로 기원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보리는 6배성밀이 출현하기 전까지는 4배성밀보다 널리 재배되었으며 밀보다 소비, 재배와 수확이 용이하여 항상 밀에 앞서 각지에 널리 전파되고 粉食보다 粒食에 이용되었다.

밀 또한 원산지가 서남중국이라는 설이 중국

에서 나오고 있으나 국제적 공인을 얻지 못하고 있다. 중국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밀은 기원전 1300년경으로 연대추정된 雲南省 海門口遺跡에서 벼와 함께 출토되었다. 밀은 商周時代에來라는 글자로 나타나고 있어 서방에서 전래된 것이 확실하다. 우리나라에서도 밀은 보리보다 재배가 늦게 시작되어 기원전 2~1세기경의 광주 신창동유적에서 初出된다.

이상을 요약하면 수수, 기장 등의 小粒穀物과 콩, 팥의 豆類는 중국 북부와 동북지방에서 재배가 시작되어 한반도로 전래된 것으로 추정되나 후자는 自生가능성도 생각해보아야 한다. 보리와 밀도 역시 중국을 통해 전래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까지의 증거로 보아 밀은 초기철기시대 이후에 나타난다. 보리와 밀은 원래 겨울작물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청동기시대에 겨울작물과 여름작물이 윤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벼의 재배는 현재까지 발견된 고고학적 증거로 볼 때, 중국의 長江流域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며 이곳에서는 이미 기원전 7천년경전부터 벼의 植物遺體가 출토되고 있다.<sup>310)</sup> 長江流域에서 시작된 벼농사는 해안을 따라 차츰 북상하는데 山東半島에서는 기원전 3천년기에, 遼東半島에서는 기원전 1천년경에 벼농사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벼농사도 山東半島나 遼東半島에서 중서부지방으로 전파된 것으로 보이는데 확실한 전파경위와 과정은 아직 밝혀지고 있지 않다.<sup>37)</sup> 청동기시대 유적에서 출토되는 炭化米의 평균 크기를 보면 평양 남경은 長 4.5mm 幅 2.5mm 長幅比 1.88, 여주 혼암리는 長 3.73mm 幅 2.23mm 長幅比 1.62, 부여 송국리는 長 4.2mm 幅 2.37mm 長幅比 1.79로, 혼암리는 남경과 송국리에 비해 낱알이 작고 개개 낱알의 크기도 고르지 않다. 이들 炭化米를 포함하여 기타 다른 청동기시대 유적 뿐 아니라 原三國時代 유적에서 출토되는 炭化米도 모두 자포니카형에 가까운 短粒型에 속한다.

최근 들어서 신석기시대 후기인 기원전 2천년경 전후에 속한다는 벼씨들이 잇달아 김포와 일산의 土炭層에서 발견되고 있다.<sup>9)</sup> 일산지구에서는 4070±80BP의 放射性炭素年代를 가진 土

炭層에서 벼씨가 출토되었는데, 벼씨의 크기는 長 6.45~7.18mm 幅 2.92~3.24mm 長幅比 1.99~2.33이며, 剛毛가 없는 光殼稻三 발견되어 주목된다. 이들 벼씨들은 현재 재배되고 있는 자포니카벼보다는 크기가 약간 작고 細長하여 지금까지 청동기시대 유적에서 발견된 短粒型의 벼와는 다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 벼씨가 출토된 層位와 年代에 대하여 회의적 견해를 보이는 고고학자들도 있기 때문에 신석기시대 벼농사의 존재여부는 앞으로 계속 심도깊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주제이다.

청동기시대에는 앞의 곡물 외에도 각종 과실류와, 채소류, 외, 호리병박 등 다양한 작물이 재배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식물유체가 발견되지 않아 확실한 상황은 알 수 없다. 그러나 초기철기시대유적인 광주 신창동유적에서는<sup>6)</sup> 참외와 살구, 복숭아 씨앗이 발견되었고 이들은 아직 정확한 감정은 거치지 않았으나 재배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복숭아는 西日本의 야요이 前期유적에서 대량 발견되고 있으며 벼농사와 더불어 남한에서 전래된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sup>15)</sup> 최근 안면도 고남리 B-2호 貝塚에서 복숭아열매가 출토되어 신빙성을 높여 주고 있다.

### 3. 先史食料研究의 問題點

앞서 청동기시대의 농경양상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였는데, 다른 선사시대에도 생계유형의 지역적 차이는 물론 있었다.<sup>4,8,17)</sup> 즉 바닷가나 섬의 유적들은 어로활동에 큰 비중을 두었으며, 내륙의 유적은 수렵과 식물채집의 역할이 컸을 것이다. 또한 유적이 위치한 입지조건이나 생태환경에 따라 식량자원의 종류와 생계전략도 달랐을 것이다. 그러나 식생활을 복원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動植物遺體資料가 아직은 극히 적고, 지금까지 우리 고고학계에서 이러한 동식물자료를 찾고자 하는 노력 또한 부족한 실정이라 선사식료연구에 한계가 있다. 실제로 식물자료를 찾기위해 필수적인 작업인 浮選法(floatation)이 적용된 유적은 전혀 없으며, 이러한 작업을 수행할 전문적인 동식물

고고학자의 수도 극히 제한된 실정이다. 물론 선사시대 생계를 복원하는 데는 동식물자료 외에도 도구조합, 자원영역분석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나 아직은 연구가 활발한 단계는 아니다. 고고학 외에 다른 인접학문에서의 공조체계가 확립되기를 절실히 바라는 바이다.

끝으로 본문에서 언급된 식물유체의 감정은 전문가의 과학적분석을 거친 것도 있는 반면 발굴자의肉眼에 의한 것도 있기 때문에 잘못 감정된 자료도 섞여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기 바란다.

### 참 고 문 헌

1. 다나카 마사다케(신영범 譯), 재배식물의 기원, 전과과학사, 서울, 1992.
2. 申淑靜. 우리나라 신석기시대의 자연환경-남해안지방을 중심으로-, 韓國上古史學報 10, 17, 1992.
3. 安承模, 稻作과 稻作文化의 出現, 한국짚문화, 139, 국립민속박물관, 1991.
4. 이기길. 우리나라 신석기시대 주민들의 생계유형, 博物館紀要 7, 5, 1991.
5. 李盛雨, 東아시아 속의 古代韓國食生活史研究, 鄉文社, 서울, 1992.
6. 趙現種, 張齊根. 光州 新昌洞遺跡-第1次調査概報, 考古學誌 4, 31, 1992.
7. 池建吉, 安承模, 韓半島 先史時代 出土 穀類와 農具, 韓國의 農耕文化, 53, 京畿大學出版部, 1983.
8. 최정필, 원시농경에 관한 제문제, 한국상고사, 332, 韓國上古史學會編, 민음사, 서울, 1989.
9. 한국선사문화연구소·경기도, 자연과 옛사람의 삶(일산 새도시 개발지역 학술조사보고 1), 1992.
10. 許文會. 韓國栽培稻의 起原과 傳來, 韓國考古學報, 27, 59, 1991.
11. 稜三, 韓國におけるドングリの加工と貯藏に関する事例研究, 季刊人類學 16~4, 117, 1985.
12. 渡邊 誠. 日韓におけるドングリの食の繩文土器の起願-韓國における考古民族學的研究 II, 名古屋大學文學部研究論叢, 史學 33, 1, 1987.
13. 渡邊 誠. 鳳溪里遺蹟出土の植物遺體, 考古歷史學志 5·6, 475, 1990.
14. 佐々木高明, 日本史誕生(日本の歴史①), 集英社, 東京, 1991.
15. 寺薫薰, 彌生時代の食料-畑作物, 季刊考古學 14, 23, 1986.
16. 林泰治, 救荒植物と其の食用法, 京都書籍, 京都, 1944.
17. Choe C.P., Origins of Agriculture in Korea, Korea Journal 30(11):4, 1990.
18. Harris M. and Ross E.G., FOOD and EVOLUTION, Temple University Press, Philadelphia, 1986.
19. Lee R. and Devore I. eds., Man the Hunter, Aldine, Chicago, 1968.